

김기남  
김초롱  
김희진  
이민행



라온아띠 라오스팀

I'm fine *thank you!* And you?



깊숙한 산골 마을

나케



김희진

깊숙한 산골 마을

나케



이렇게 깊은 숲 속에 마을이!

## 정말 예쁜 마을 나케

다른 마을을 거치지 않고 산에서  
바로 흘러온 물이라 물이 무척 맑다



나케는 산길을 한 시간 남짓 걸어야 만날 수 있는 숲 속 마을이다.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됨...! ^\_ㅠ...!!!  
다문화 국가인 라오스의 세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조용하고 예쁜 마을에서 네 달 간의 라온아띠 활동을 했다.



나케에서의 삶은 어때요?

## 나케에서의 생활상 이모저모



중고등학교는 방비엥 시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나케 마을 학생들은 이 **스쿨버스를 타고 통학**한다. 새벽에!

외부 봉사자 및 자원활동가들이 **꾸준히 방문**하는 편이다.  
최근엔 기부 여행(?)을 오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것 같다.



나케에서의 삶은 어때요?

## 나케에서의 생활상 이모저모



내가 활동한 나케 유스 센터는 마을 주민들이 청소년들을 위해 전통적인 건축 방식으로 힘을 모아 지은 센터였다.

올해 4월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센터 건축을 아주 조금은 도울 수 있었고, 오프닝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센터를 찾아오는 아이들 ><

센터엔 항상 아이들이 가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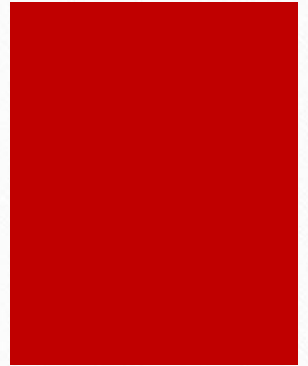
센터에서는 주로 미술, 영어, 한국어, 춤 수업이 진행되고 가끔 영화를 상영하기도 한다. 새 외부 봉사자가 오면 봉사자의 특성을 살려 유연하게 수업을 변경하는 편이다. 이제 막 걷고 뛰기 시작한 아주 어린 아기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매일 센터를 찾아온다.

그래서 내가 맡은 수업은

## 참 열심히 준비했던 영문법 수업



처음엔 영어에 자신이 없어 많이 고민스러웠던 영문법 수업.  
4월엔 주어-동사 찾기부터 시작했다. 아니다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를 설명하는 것부터! 놀랍게도 7월엔 동사 변화를  
어느 정도 통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세상에...** 모든 학생  
들의 영어 실력이 다 달랐고, 내가 라오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  
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 유행어 만들기에 성공한 한국어 수업

주로 간단한 단어와 문장을 함께 공부했다. 종종 한글을 가르치기도, 동요를 가르치기도 했다. 참여 연령대가 어려서 한글을 오래 기억하는 학생은 많지 않았고 긴 회화 수업은 없었지만, 아이들이 한국어를 재밌어 했어서 대만족이었다 ☺



바쁜 와중에도 센터에 와준 친구들

같이 공부해줘서, 즐겨줘서 참 고마웠어요 😊



한국에 오면 연락이 끊길 줄 알았는데, 아직 연락 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진들을 보니 어린이들이 그새 훌쩍 커서 놀랐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는 빠르고, 시간도 빠르고...





호우정~ 꾸릅베 뉴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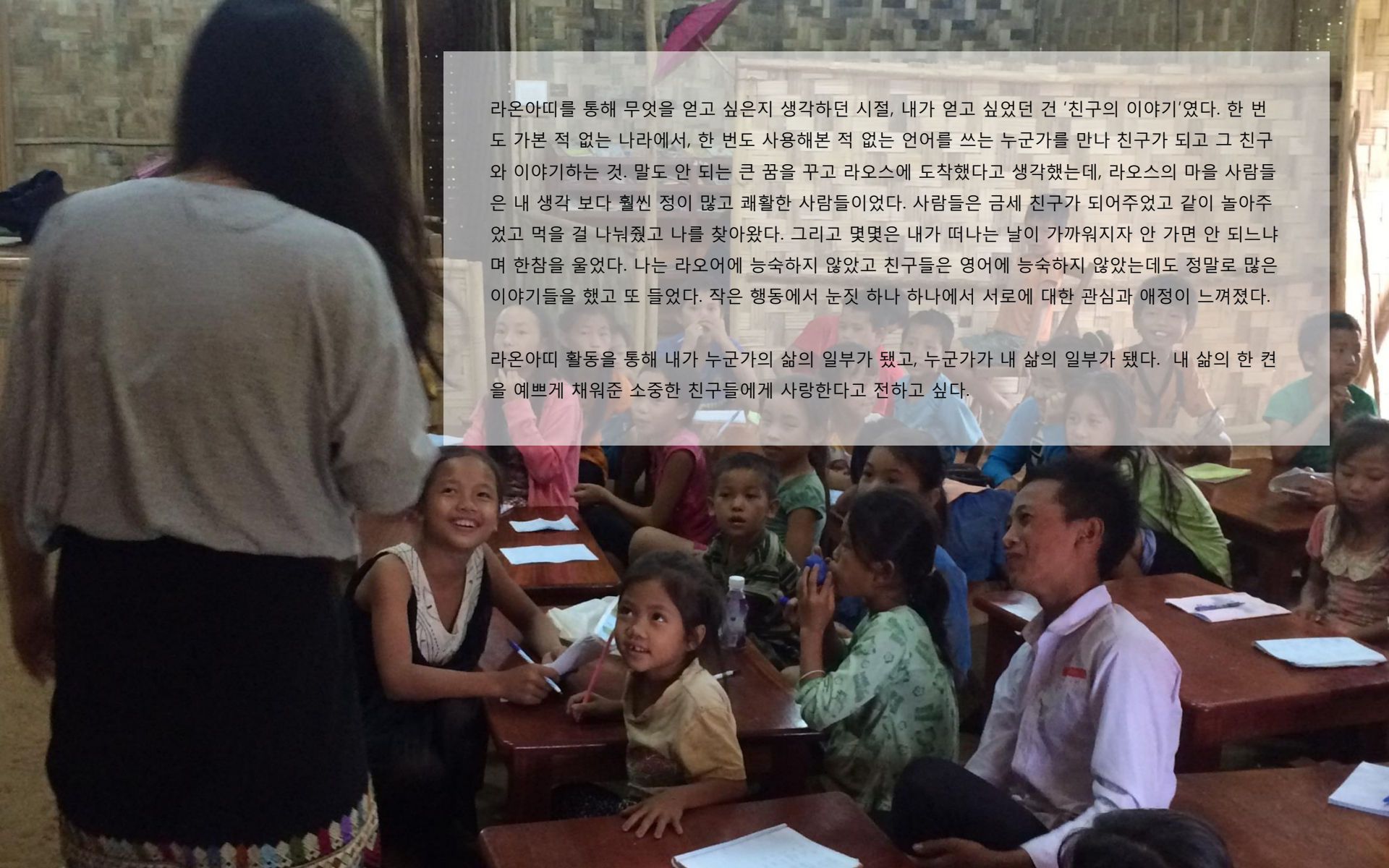
## 원어민들의 한국어-몽어 교환 스터디



라오스 소수 민족인 몽족의 언어를 배우고 싶어 시작했던 **몽어 스터디!** 생전 처음 들은 생소한 언어라 잘 외워지지 않아서 어려웠지만, **몽어** 특유의 **귀여운 발음**에 재미를 붙여 꾸준히 공부했다. 이제 원어민과 딱 1분은 대화할 수 있을 것 같다 ㅋㅋㅋ







라운아띠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는지 생각하던 시절, 내가 얻고 싶었던 건 '친구의 이야기'였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서, 한 번도 사용해본 적 없는 언어를 쓰는 누군가를 만나 친구가 되고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말도 안 되는 큰 꿈을 꾸고 라오스에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 라오스의 마을 사람들은 내 생각 보다 훨씬 정이 많고 쾌활한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은 금세 친구가 되어주었고 같이 놀아주었고 먹을 걸 나눠줬고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몇몇은 내가 떠나는 날이 가까워지자 안 가면 안 되느냐며 한참을 울었다. 나는 라오어에 능숙하지 않았고 친구들은 영어에 능숙하지 않았는데도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또 들었다. 작은 행동에서 눈짓 하나 하나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느껴졌다.

라운아띠 활동을 통해 내가 누군가의 삶의 일부가 됐고, 누군가가 내 삶의 일부가 됐다. 내 삶의 한 칸을 예쁘게 채워준 소중한 친구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다.



행복한 마을

위양싸마이



김기남

행복한 마을

위양짜마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 마을 Class



평일 6시~7시 아사와 함께 초등학생 영어수업!  
단어 위주의 수업에서 간단한 문장 만들기 수업으로 단계 업그레이드!!  
미나가 수업을 도와주어 수업을 다양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마을 Class



평일 7시~8시 아사와 함께 한국어 수업  
기본단어와 간단한 문장 만들기 수업을 진행중~  
- 단어를 어떻게 조합하는지 알게되어 단어만 외워도 간단한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 마을 Class



아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댄스교실 운영!  
수업 중 학생들의 참여가 가장 많았고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다.  
주말 6시~7시 운행하던 수업을 평일까지 연장해 센터에 대한 관심과 학생들의 열기를 높였다.



오직 생존을 위해

## 우리 마을 목욕탕



우리 집 수도 시설이 불완전 하여, 집에서 도보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남송 강에서 항상 샤워와 수영을 한다.  
요즘 우기라 흙탕물일 때가 많지만, 여기서 수영할 때가 너무 행복하다.

내 밥상의 단백질

## 물고기 사냥



남자들은 작살만을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고, 여자들은 그물과 채를 이용하여 물고기와 새우 등을 잡는다.

요즘 우기라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한다.

항상 비 온 다음날은 가족 너나 할 거 없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난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아 봤다.  
보기와 다르게 엄청 어렵다.



## 오늘은 내가 요리사



농번기의 시작으로 주로 요리를 하셨던 Home stay 부모님이 나케마을로 떠나셨다. 그래서 남은 아들과 딸 들은 매 끼니를 돌아 가면서 하기로 했다. 그래서 나도 하루에 한끼 요리를 하기로 했다. 감자 볶음만으로 4번 식사를 때웠고 각종 통조림과 삶은 계란으로 하루하루 고비를 넘겼다.



마을 친구들과 함께

여가시간



아사와 친구들과 함께 탐푸캄(블루라군) 고고씽~.



그리고 탐짱도 고고씽~!



마을 친구들과 함께

## 행복한 추억들



- 강에 피크닉 갔다가 돌아오는 다리
- 마을 초등학교 벽화에서
- 팽의 형 결혼식에서(축하드려요~)



나도 우리집 식구

집안일 배우기



벽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시멘트를 외관 벽에 덧칠 한다.

주로 아버지가 벽에 시멘트를 바르고, 난 그냥 시멘트를 통에 담아주기만 한다. ^^



집 텃밭 가꾸기!  
아사와 함께 곡괭이질로 땅을 갈아엎었다.

그 밖에 숲이나 농장예가 달팽이, 각종 식물을 캐온다. 그리고 이번 달 5월에 파 농사가 끝이 났다.





새로운 포켓몬 진화

김기남 잠만보 진화?!



## 오늘은 내가 요리사



농번기의 시작으로 주로 요리를 하셨던 Home stay 부모님이 나케마을로 떠나셨다. 그래서 남은 아들과 딸 들은 매 끼니를 돌아 가면서 하기로 했다. 그래서 나도 하루에 한끼 요리를 하기로 했다. 감자 볶음만으로 4번 식사를 때웠고 각종 통조림과 삶은 계란으로 하루하루 고비를 넘겼다.





## 나케 쌀 농장



- 1주, Home stay 부모님이 쌀 농장에서 살면서 쌀을 심기 위한 거의 모든 준비를 마쳤다.
- 2주, 나도 농장에 가서 길을 내고 물고기와 다슬기를 잡고 놀았다.
- 3주, 쌀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 4주, 난 루앙프라방으로 도망갔다.
- 5주, 쌀이 자라기를 기다렸다.
- 6주, 쌀이 익어갈 것을 기다렸다.

## 이건 재미로 kkk

### 방비엥 city tour


#### 투어

1. ATV
2. 카약킹
3. 튜빙
4. 줌라인
5. 산악 오토바이 투어
6. 산악 트래킹
7. 몽족투어
8. 암벽등반\*11월~5월
9. 열기구 체험\*11월~5월

#### 투어 외에 찾아갈 곳

1. 탐 푸캄(블루라군)
2. 탐 짱
3. 탐 롬
4. 갱유이 폭포(유이 폭포)
5. 딸라 방비엥(북부 시장)
6. 사쿠라 바(여행객 클럽)
7. 하트비트(로컬 클럽)





나몬느마을에서 한달 반을 살다가 비앙쌘마이마을로 이사를 했다. 처음에는 이사 하는 게 싫었다. 이제 마을에 대해 조금 알았다고 생각했고,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다. 그래도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이동이 필요했고 비앙쌘마이마을로 오게 되었다.

약간의 두려움은 기대로 바뀌었고 너무 정이 넘치고 사랑을 많이 받았다. 우리마을은 깽완과 파파야 샐러드를 만들 때면 항상 친구들이 10~15명 까지 모인다. 그리고 다 함께 뜨거운 깽완을 호호 불면서 먹고 매운 파파야 샐러드를 스~습 프리(맵다)하며 웃으며 먹는다. 이런 분위기가 좋고 행복하다. 그리고 여기서 만난 새 가족들, 특히 아사와의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 행복과 웃음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웃음은 항상 사랑스럽다. 내 그릇에 비해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 벅차다. 사랑을 어떻게 받을 줄 모르겠다는 물음에 와락 안아 버리라고 한다.

근데 어떻게 해야 안을 수 있는지? 그냥 팔 벌려 안으면 되는건지? 여기서 여자를 안아도 문화상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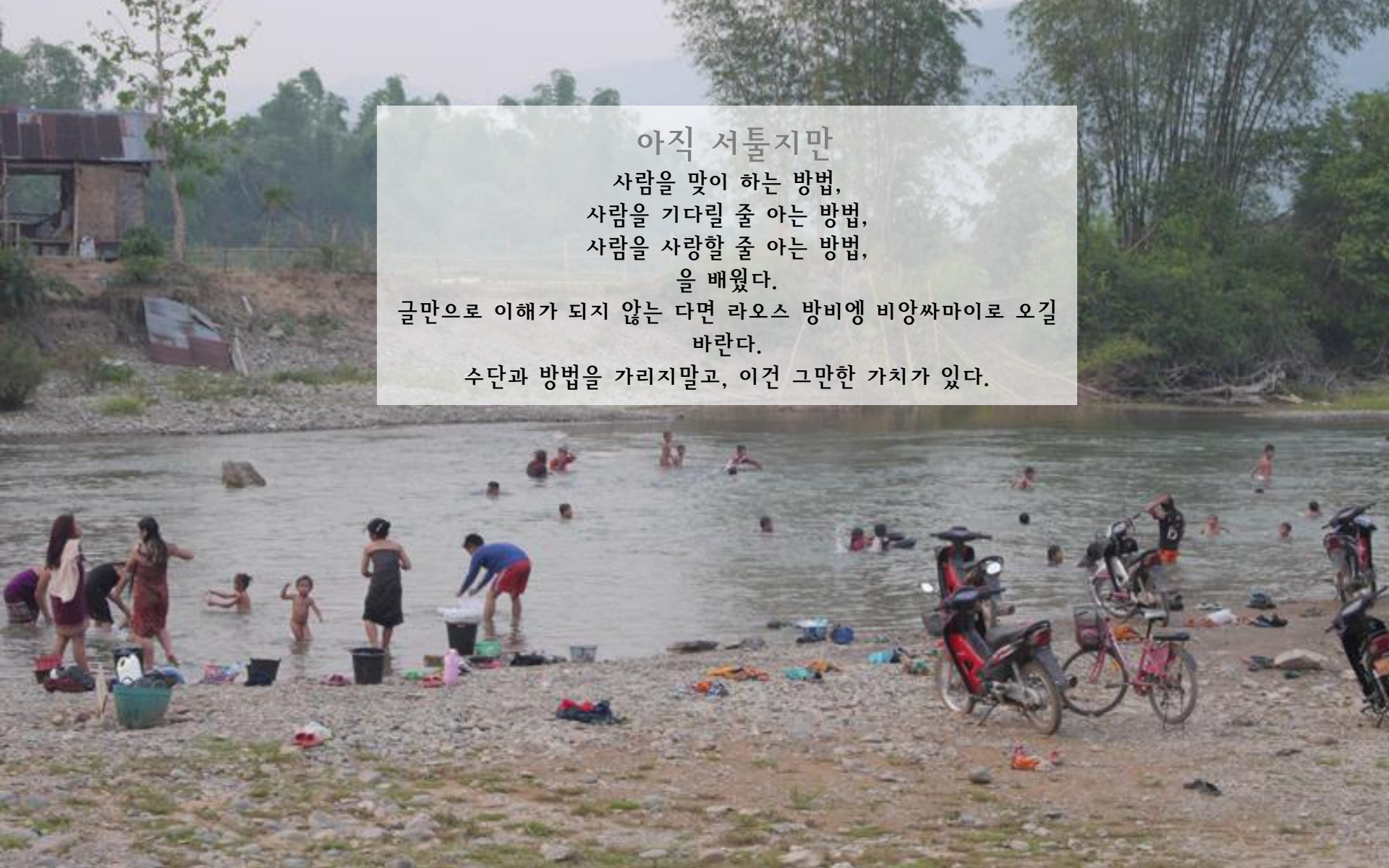


## 아직 서툴지만

사람을 맞이 하는 방법,  
사람을 기다릴 줄 아는 방법,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  
을 배웠다.

글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라오스 방비엥 비앙짜마이로 오길  
바란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걸 그만한 가치가 있다.







따뜻한 마을

나몬느아

김초롱

따뜻한 마을

나몬느아





NYC STAFFS

Language Exchange  
월~금 9:00~11:00



영어, 몽어, 라오어, 한국어 스테디

Elementary school

English&Art class

월~금 4:00~5:00



초등학생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 꾸와 실로



자유롭게 색칠공부



Secondary school

English class

월~금 5:00~6:30



중 고등 학생들을 위한 기본 문법과 발음 교정 수업(원-기남/오-초롱)

# 센터 컴퓨터를 지켜라!!



→ 도둑놈들아  
오기만 와봐라!!

우리마을 센터(일명 흥간)에는 컴퓨터 8대가 있다. 하지만 군인들이 근무지를 흥간에서 다른 곳으로 바꾸면서 우리의 컴퓨터들이 위험해졌다!! 그리하여 순번을 정해 우리가 보초를 서기로 결정!!



# 보초서는 우리들의 모습 😊



보초를 서면서 같이 영화를 보기도하고  
친구들이 잠깐 놀러왔다 가기도 하고  
막간을 이용하여 영어, 한국어 공부를 하기도 했다.

# 영어에 죽고, 영어에 사는 영어에 미친놈 '까오'

이제 친구를  
가르치기 까지  
하는 까오



까오 왕(23세/나몬느아 영미남)



집을 떠나는 날



잊지못할 나의 가족과 나몬느아 미녀 사총사들



잡초뽑기

계속되는  
휴강

범씨심기

바나나나무  
베어오기

품앗이

새참만들기

벼뽑기

물떠오기

삼질하기

산넘고  
강건너기

밭갈기

대나무끈  
만들기

제초제뿌리기

잡초뽑기

옥수수심기

몸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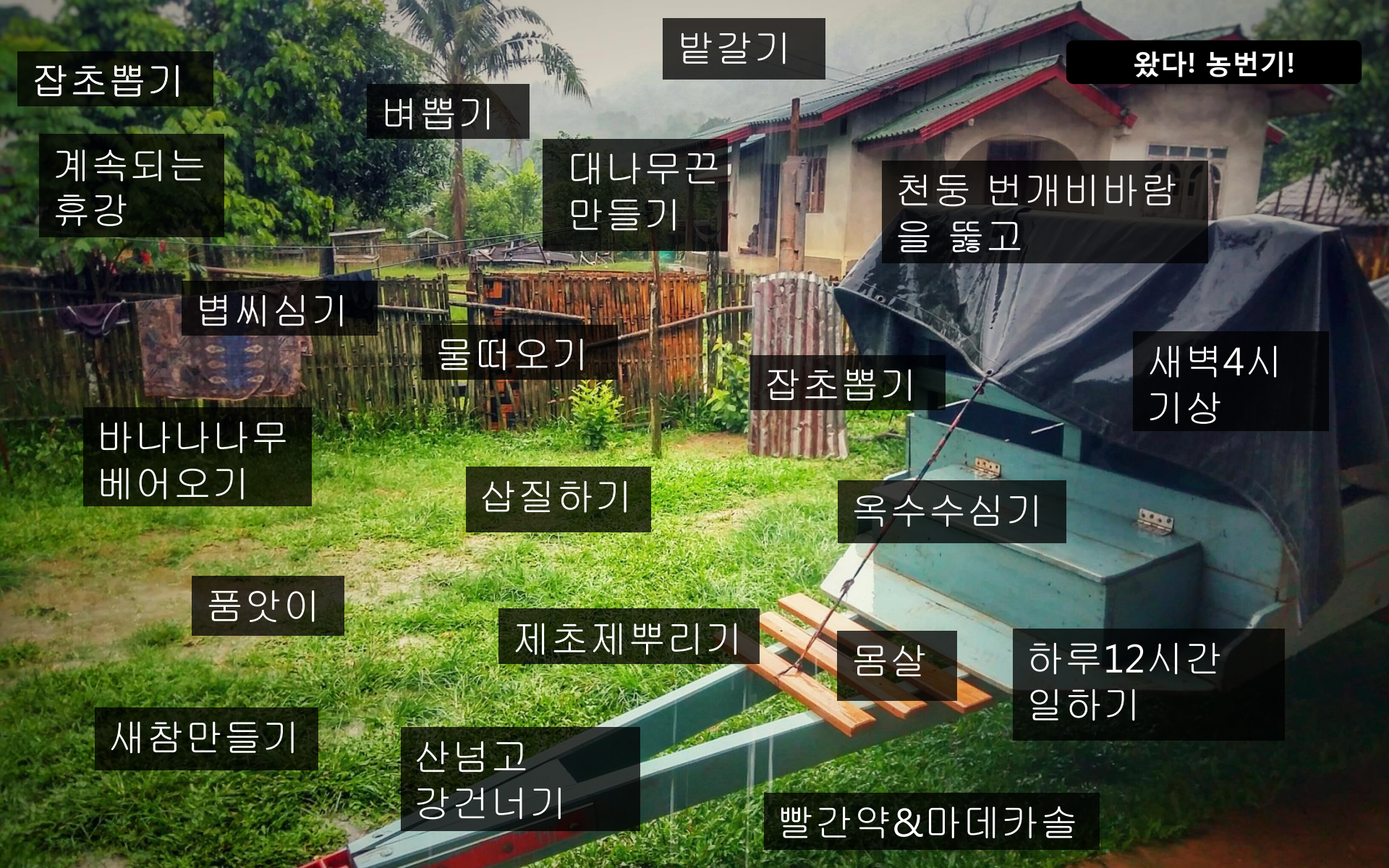
빨간약&마데카솔

왔다! 농번기!

천둥 번개비바람  
을 뚫고

새벽4시  
기상

하루12시간  
일하기





5개월을 한 마을, 한 집에서 살았다. 가족, 친구들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지극히 평범하게 지냈다. 친구가 가끔 짜증나게 하면 엉덩이를 몇 대씩 차기도 했다. 술도 안마시고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르며 같이 춤을 추기도 했었다. 내가 우울하면 ‘땅미’를 먹으러 가자며 없는 돈을 꺼내어 사주기도 했다. 동생들이 다쳐 올 때 속상해서 꿀밤을 하나씩 때리기도 했다. 동생들의 신세 한탄을 몇 시간씩 들어주기도 했다. 마니와는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기도 하고 서로 고민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 여동생이 자 둘도 없는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다. 이제는 서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었고 뭘 어쩔 줄 모르던 부엌에서도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척척 도울 줄 알게 되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한국음식이 아닌 라오스음식이 생각났다. 내가 라오스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도 많았다. 그냥 이게 나의 일상이었으니까. 너무나도 익숙했으니까.

언젠가는 가야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것조차 잊고 살았었다.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다. 근데 이제 떠나야 한단다. 그러니까 짐을 싸란다. 사람 이렇게 사랑하게 만들어 놓고는, 사랑에 빠지게 해놓고는.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니까 짐을 싸라니. 솔직히 떠나기 싫었다. 너무 마음이 아팠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더 있으면 안되냐고 떼도 써볼까 고민도 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한다는 것을 알기에 짐 정리를 시작했다.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볼 걸 알기에 많이 슬퍼하지는 않으려다. 평생 잊을 수 없을 5개월. 아직도 눈에 아른 거리는 내 가족들과 친구들. 또 보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다 만나자. 사랑한다.





유일한 도시 근처

푸딩당



이민행

유일한 도시 근처

푸딩당







4월 16일 부터 살게 된 마을 푸딘댕.

도시와 시골의 경계. 하지만 **사람냄새**로 흠뻑 젖어있는 마을 **푸딘댕**.





즐길 줄 아는 푸딩땡 아이들

## 마을 수업 시간

저녁 5시부터 7시까지(7시에 끝난 적은 없다).  
마을 센터에선 모든 종류의 수업이 진행된다.

주로 영어 수업과 한국어수업이지만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 함께 놀기도, 춤을 추기도,  
계곡에 놀러 가기도 한다.

즐길 줄 아는 푸딩땡 아이들

## 마을 수업 시간



### 아이들 대장님

이름 : 끼앙

나이 : 18

특기 : 아이들 벌칙주기, 춤 추기, 한국어 따라하기

취미 : 아이들과 놀기, 기타 배우기(나에게)



카리스마 작렬





즐길 줄 아는 푸딩댄 아이들

## 마을 수업 시간



주말에는 Dance Class!

라오스 전통 춤부터 K-pop, Hip-hop까지!!

때로는 마을 쓰레기 줍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척척 잘 한다.





푸틴댕 주민이 되어버린

## 마을 살이

단지 신기하고 특별한 외국인이 아닌  
이 마을에 사는 주민이 되기 위해  
내 모든 생활 패턴을 푸틴댕 사람들에게  
맞추었다.

가족에게는 가족이, 아이들에게는 친구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주민이 되기 위해.



푸딘댕 주민이 되어버린

## 마을 살이



라오스 하면 빠질 수 없는 술!

이 곳 푸딘댕 사람들도 술을 무척 좋아한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마을 어딘가에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곤 한다.

특별한 일이 없는 아침에는 가족들과  
농장에 갔다. 요즘 고추 철이라 고추를  
재배하는데 즉석에서 먹어보라고도 하신다.  
유기농이라 믿고 먹는데.... 맵다.  
그래도 꼭 참고 먹어본다...



심심할 땐 마을 센터에서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과 그림도 그리고 낙서도 하며 논다.

언어 소통이 완벽하게는 안되지만 즐겁게  
웃으면서 함께 노는 아이들!

푸틴댄 주민이 되어버린

## 마을 살이



농장에 벼를 심을 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심는다.  
그리고 뒤따르는 점심 **고기파티**...(때문에 힘들어도 참는다ㅎ)

라오스의 흔한 현지인들.jpg



푸딩댕 주민이 되어버린

## 마을 살이



농장에 가려면 이 멋쟁이 아저씨가 끌어주는  
배를 타고 가야 한다.

이제는 이 멋진 계곡에서 샤워를 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물론.... 다 벗진 않는다. ㅎㅎ





**렉(15) / 사진작가**

현지 주민이 직접 찍은

**이게 진짜 라오스다!**

끼앙, 라삿, 렉의 눈으로 본 세상

내가 찍은 3847장의 어떤 사진보다 예쁘고 아름다운 사진들.

단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훗날 그들이 다시 사진기를 마주 할 때,  
오늘의 예뻐던 추억들이 생각나길.

※무단 복제, 배포에 대해서는 절대 허 합니다.※  
친구들이 좋아할거예요.



렉의 눈으로 본 센터. 2016-06-14

이 친구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았다.

현지 주민이 직접 찍은

# 이제 진짜 타오스타!

ຊ່ວຍກັນຮັກສາຄວາມສະອາດ  
ພ້ອມັນຂອງພວກເຮົາແລະສະໜອງແວດລ້ອມທີ່ດີກ່ວາ  
Let's keep cleaning for our community and better environment.  
%ດ້ວຍໂຕຍ: ສູນ ຊ່ວຍເຫຼືອ ຊາວໂຮງ  
ສະໜິດສະຫຼຸບ ໂຕຍ: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NCU)





현지 주민이 직접 찍은  
이게 진짜 라오스다!

끼앙의 눈으로 본 푸딘탱. 2016-06-08  
이 친구의 눈에는 모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보다





현지 주민이 직접 찍은

이게 진짜 라오스다!

-끼앙 편

끼앙의 눈으로 본 하늘. 2016-05-02

쌍 무지개가 뜬 이 날. 농장일을 하던  
도중 우리는 말 없이 하늘만 바라봤다.





현지 주민이 직접 찍은

이게 진짜 라오스다!  
-블라오 편

블라오의 눈으로 본 농장. 2016-05-14  
산 봉우리 사이로 새는 빛을  
단지 감각적으로 포착





현지 주민이 직접 찍은

# 이게 진짜 타오스다! -레편

렉의 눈으로 본 마을 친구. 2016-05-01  
이 친구에게 사진을 배우고 싶다.



현지 주민이 직접 찍은

## 이게 진짜 라오스타!

### Epilogue

사실, 처음에는 카메라를 어디 두고 가는 것이 두려웠다. 카메라에게 많은 위험이 닥칠까 항상 내 손에 있어야 안심했다. 하지만 역시 걱정뿐이었다. 내 손을 떠난 카메라는 더 멋진 세상을 보고, 더 순수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내 손으로 돌아왔다.

친구들의 사진 찍는 솜씨에 감탄했다. 사실 솜씨도 아니다. 단지 그들의 눈으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봤을 뿐이고 단지 셔터를 눌렀을 뿐이다. 하지만 그렇게 탄생한 사진에는 이야기가 담겨있었고 그들의 진심이 담겨있었다. 그리고 사진을 통해, 나는 내 친구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이 곳 라오스를 더욱 순수한 눈으로 볼 수 있었다.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다. 내 친구들이 훗날 어떤 상황에서건 카메라를 잡게 되거나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예뻐던, 즐거웠던 추억을 잠시나마 떠올려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나 역시 행복했던 추억을 1328컷 안고 간다.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 자원봉사자

두 번의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마을에서 활동하는 것을 도와주고  
프로그래밍도 해 보았다.

단 두 번 뿐이었지만 전혀 다른 색깔의  
활동을 보았고, 비교 아닌 비교를 하면서  
국제자원활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현지에서 직접 만난

한국인 자원봉사자

A 사례



B 사례





현지에서 직접 만난

한국인 자원봉사자

A 사례



B 사례





점을 찍어 주었다.

지난 5개월 동안 나는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바꾸지도, 만들지도 않았다.  
그저 내 가족들, 친구들 인생에 아주 조그만 점을 찍어 주었다  
그들의 인생에 나는 아주 작은 점일 뿐이다.

하지만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작은 점 하나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찍어준, 나로 인해 찍힌 그 작은 점 하나가  
다른 멋진 점을 만나고, 이어지고,  
선이 되고, 면이 되어  
결국 인생이라는 멋진 그림이 만들어 진다면  
그 점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닐 테니까.

그리고 내 인생이라는 그림에는  
이미 이 곳 사람들로 인한 멋진 점들이  
나의 인생에 그려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으니까.





+ / 저희는 다시 마을로 갑니다!

언젠가 😊